LG디스플레이, UHD 패널시장 1위

10월 점유율 28.1%로 시장 주도권 탈환 ... M+기술 차별화 전략 주효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가 UHD(Ultra High Definition) TV 패널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2014년 10월 57만8000대의 UHD TV 패널을 판매하며 점유율 28.1%를 기록해 24.0%를 기록한 타이완의 Innolux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국내기업이 UHD 패널 시장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으로 저가형 UHD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타이완기업들을 22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UHD 패널 시장은 2012년부터 LG전자와 삼성전자가 80인치대 UHD TV를 내놓으면서 개화됐으나 국내기업들이 프리미엄제품 위주의 전략을 고수하는 사이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낮춘 중국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혁신적인 화소배열 구조와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렌더링 기술이 결합된 M+기술로 차별화된 UHD를 선보여 단기간에 경쟁자들을 따라잡는데 성공했다.

특히, 글로벌 UHD TV의 6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고객기업에 대한 현지 밀착형 영업 마케팅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2014년부터 UHD No.1 TDR이라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UHD TV 패널 시장 1위 탈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 10월 UHD TV 패널 출하량은 205만대로 LG디스플레이에 이어 타이완 Innolux가 24.0%로 2위, 삼성디스플레이가 20.2%로 3위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1/20>